

사천왕사 왔소 2003 축하 메시지

사천왕사 왔소 행사가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 재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자들과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오사카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명실상부한 '동반자 시대' 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힘을 합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와 우의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아낌없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올해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얼마 전 저는 방콕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교섭을 올해 안에 시작하고, 사회보장조약도 조기에 발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오랜 역사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거리는 물론 문화

와 정서적인 면에서도 가까운 이웃입니다. 1,500년에 이르는 조상들의 교류와 친선의 역사는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천왕사 왔소’는 역사 속에 숨쉬고 있는 한·일간 친선과 우호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은 조상의 얼과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한·일간 우호와 협력의 가교가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천왕사 왔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